

小兒癲疾 治驗例

金德坤*

症 例 1.

患者：기●석, 男兒 1979. 4. 4. 生

主訴：痙攣發作

發病日：滿4歲頃(幼稚園에서)

過去歴：別無旨

家族歴：歎吸(1男 1女 중 막내이며 父, 母, 祖母와 함께 살고 있음)

現病歴：滿10歲의 약간 瘦瘠型 體格과 內性的이며 小心한 便의 性格의 아이로 平素에 強이 많고 잘 놀래며 盗汗이甚한 便이고 비교적 感冒에도 잘 걸리며 항상 無力하며 疲勞도 잘 느낀다. 幼兒時에는 夜啼症狀이 있었으며 자주 토했고, 다른 特記할 事項은 없었음.

그외에 本症인 痙攣發作은 發病時는 幼稚園에서 낮 잠자는 도중에 시작했으며 그後 別 문제없이 지내다가 1988년 봄철에 또 다시 發作을 했고 이번에 1989년 4월 16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반도시 수면증에 전신적으로 2~3분간 정도 찬시(寢視)와 口噤不開 등의 증상과 팔다리와 전신이 強直性으로 發作을 일으켰다.

検査所見：腦波検査를 本院 E.E.G室에 依頼하여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총 4회 실시하였다.

1次所見：Mild abnormality, Epilepsy foci at both temporal region.

2次所見：Minimal abnormality, Improved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cord.

3次所見：Minimal abnormality, No interval change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cord.

4次所見：Minimal abnormal waking and sedated sleep E.E.G Slightly improved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cord.

治療 및 經過：幼兒때부터 夜啼病狀과 熟眠을 取하지 못했고 腹診上 腹直筋이甚히拘攣되어 있었으며 脈도 細數하며 無力하였다. 顏色은 黑고 蒼白한 편이었다. 곧바로 心膽虛悅에 依한 补心이 必要하다고 判斷되어 壯胆補心湯을 投與하면서 腦波検査를 實施하였다. 結果는 癲疾로 判明되었고, 痘巢는 左右側頭葉에서 異狀腦波所見이 나왔다. 壯胆補心湯 Extract를 投藥하는 동안 心虛한 脈象이 顯著히 好轉되었으며 깊이 熟眠을 取하고 銳敏하고 神經質의 い던 諸般 神經症이 顯著히 緩和되었다.

그後 根本的인 癲疾의 痘을 除去할 目的과 同時に 癲疾의 諸發作에 有效한 千金調胃湯 Extract를 계속 投與하여 6個月에서 1年 간격으로 腦波検査를 實施하여 檢査를 反復할 때마다 脊波가 뚜렷히 줄어들어 好轉되었다는 判定을 받았으며 現在 '89年 4月以後 痙攣發作은 完全히 消失되었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